

ASEAN, 2012 상반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한국의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012년 상반기 한국의 ASEAN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해 주요 수출대상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총액은 2,75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에 그쳤으나, 對ASEAN 수출은 38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함.

주요국 수출증가율: 중국 -1.5%, 미국 10.2%, EU -16.1%, 일본 2.4%

■ 한국의 2012년 상반기 對ASEAN 수출을 살펴보면 국별로는 베트남·필리핀, 품목별로는 전기기기·철강·기계류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베트남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HS-85(전기기기와 부분품, 전체 30% 비중) 수출이 전년대비 85.7% 증가한 것이 특징임.
- 필리핀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HS-85의 수출증가율은 13.2%에 그친 반면, 제2대 수출품목인 HS-27(광물성연료)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9.9% 증가함.
- 품목별로는 대다수 주요 수출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수출 품목인 HS-27(광물성 연료)의 증가율이 8%에 그친 반면, HS-85(전기기기와 부분품), HS-72(철강), HS-84(기계류)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1. 한국의 ASEAN 국별·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위	국명	2011			2012 1H			품목	2011			2012 1H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싱가포르	20,839	36.7	29.0	11,304	8.6	29.6	HS-27	15,352	81.6	26.8	8,559	8.0	27.5
2		13,465	39.5	18.8	7,475	21.1	19.6	HS-85	14,340	17.6	25.0	7,740	17.4	24.8
3	인도네시아	13,564	52.5	18.9	7,104	7.6	18.6	HS-89	6,062	50.2	10.6	3,392	4.4	10.9
4	필리핀	7,339	25.7	10.2	4,149	22.4	10.9	HS-72	6,303	43.4	11.0	3,117	11.8	10.0
5	태국	8,459	30.9	11.8	3,945	4.6	10.3	HS-84	5,099	14.8	8.9	2,873	22.3	9.2
6	말레이시아	6,275	2.6	8.7	3,445	8.9	9.0	HS-39	3,103	20.0	5.4	1,645	3.9	5.3
7	캄보디아	451	35.4	0.6	287	37.9	0.8	HS-87	2,655	20.7	4.6	1,369	10.3	4.4
8	미얀마	667	39.3	0.9	277	-18.2	0.7	HS-60	1,879	22.1	3.3	934	-3.7	3.0
9	라오스	154	37.6	0.2	85	4.7	0.2	HS-29	1,325	15.1	2.3	835	12.4	2.7
10	브루나이	588	803.4	0.8	60	-79.4	0.2	HS-40	1,272	76.6	2.2	689	26.3	2.2
	총계	71,801	35.0	100	38,131	10.8	100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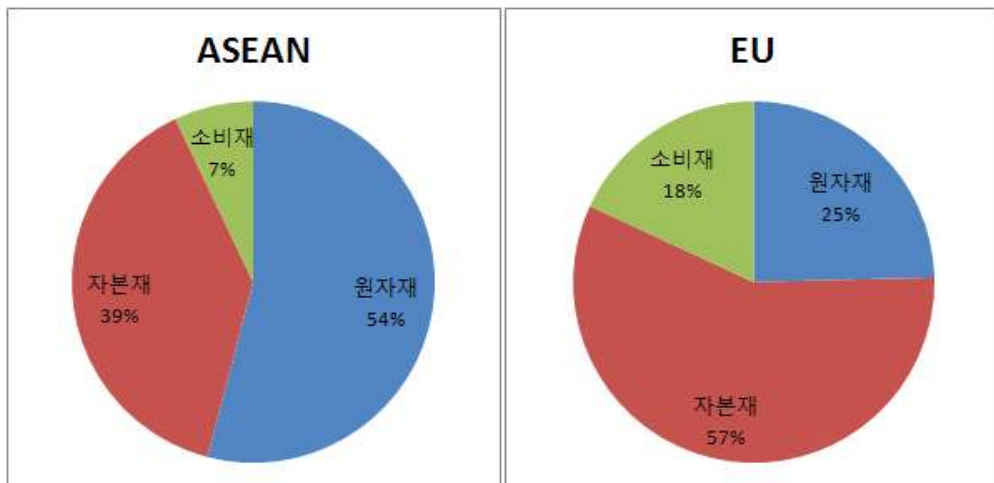
■ 한국의 對ASEAN 수출 증가 배경으로는 한국-ASEAN 생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들 수 있음.

- 한국의 對EU 수출의 경우 원자재 보다 자본재와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재정위기로 EU회원국들의 소비·투자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對EU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한국의 對ASEAN 수출은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對ASEAN 투자진출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로 인해 전기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 활용되는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음.
- 생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 물량 결정이 단기 수요변화 보다는 기업별 중장기적인 생산계획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향이 강해서 단기적인 충격에 의해 수출이 급감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음.

1. 한국의 ASEAN과 EU 수출 구조 비교(2012년 상반기)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향후 유럽재정위기 극복 이후 ASEAN 국가들이 고성장세를 회복하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원자재 및 자본재 수출은 물론 소비재 수출 시장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에 의한 구매력 향상,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한국 유통업체들의 ASEAN 진출 증가 등 현지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도 증가하고 있음.

이재호 전문연구원)